1차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 안건지

발신 : 19대 女心만만 총여학생회

수신 : 늘 수고 많으신 단대 여학생회장님 및 여학국장님들

1. 인사합시다^^*

다들 처음 보는거 맞죠? 서먹서먹하기도 한데 인사하면서 친해집시다.

2. 본 안건

- 총여학생회 방중 사업 계획서 공유 (첨부)
- 각 단대 사업계획서 공유
- 학자 부문 : 생리대 자판기

여학생휴게실 관리

생리휴강

- 새내기 사업 부문 : 총여 안내 책자에 넣을 내용 정리.(단대 여성국 인사 및 사업내용) *첨부
- 일정 공유 : 민족 동아 확대 간부 수련회(1월 16~17일)

전여대협 겨울 수련회 (1월 26~28일 예정)

3. 머리를 채웁시다!

- 일상에서 느끼는 성폭력에 대처하기! (첨부)

4. 기타안건

- 총여 카페 만들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 보여드리기 부끄럽사오나 격려 말씀 올려주셈^^.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19cy

5. 이후엔 푸~~~웍 여어지는 더블어...gogo 술마시는 분위기 예~~~!

Action Now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성폭력1) 사건들에는 공분하며 성토도 해보지만, 막상 나의 일상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성폭력 전투지대의 생존자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실전 비법 일부를 소개하오니 부디 잘 익히시고 또 응용하시어 자신과 다른 자매들을 지키는 데 아낌없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실전 비법의 마지막 최후 비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1. 지하철 짝벌남 대처법

대중교통의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 지하철 짝벌남들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사실 그 수가 너무나 많아, 어떠한 강력한 살충제를 뿌린들 퇴치불가하게 보이는 이 짝벌남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천만다행이나,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응비법들만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기]

말 그대로 좋은 말로 말하는 겁니다. "저기요, 자리가 좁아서 그런데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좀 세게 말하고 싶을 때에는 오므리시죠도 좋은 멘트죠)

이 방법은 거의 80% 정도의 승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주 크고 성깔 더러운 가해자가 아닐 경우만 빼고는 웬만한 짝벌남은 큰기침 한 번 하고 오므리는 경우가 많지요. 다만 주의 사항은 되도록 크게 말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짝벌남들은 대부분 청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로 작은 소리로 말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어도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외쳐야 다른 사람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슬그머니 다리를 오그리게 됩니다.

[말로 해선 안된다, 직접행동]

생존자 실전비법에 전해 내려오는 쾌걸들 몇몇은 짝벌린 다시 사이로 손바닥을 집으며 동시에 "아이고 여기 자리가 이렇게나 비었네" 라며 능청을 떠는 고도의 내공을 뿜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지하철 타는 것도 무척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직접 행동의 비법은 현재 30대 여성들이 쓰고 있는 비법으로 짝벌남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적극 밀어내어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짝벌남과 다리가 닿는 불쾌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강력한 의지와 저항을 한 자세에서 뿜어낼 수 있기에 짝벌남들의 기세를 한 번에 꺾는 데에 유리합니다.

2. 지하철 성폭력범 대처법

지하철은 곳곳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플랫폼, 지하철 객차 안과 밖, 매표소, 지하철 계단까지... 지하철 성폭력은 지하철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자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몇가지가 있다는데..

지하철 수사대, 피해자보고 범인을 잡아오라고?

2002년, 지하철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여기저기 만지고 다니던 가해자를 본 생존자 한 사람이 지하철 수사대의 존재를 알아 전화를 했습니다.(지하철 수사대의 전화번호는 1366에 전화를 하거나 112에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에는 지역번호 눌러야 합니다.) 지하철 수사대는 이야기를 쭉 듣다가 하신다는 말씀이 "저기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여기가 지금 **역인데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생존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하철 수사대는 이름대로 수사만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가해자를 잡기 위해 절대 직접 행차하시는 법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모시고 와 수사대 앞에 대령할 때에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지 못하고 수사대에 연락만 하고서 무언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단계 -일단 가해자가 대중 사이에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가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되도록 낱낱이) 가해자를 손가락으로 정확히 지목합니다(혹은 붙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금 내(혹은 저 언니) 엉덩이 만졌잖아요!" 그런 다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가해자에게 일제 시선이 꽂혔을 때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 가해자가 당황하며 뭐라뭐라 큰 소리를 내든 눈치를 살피든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연속동작인 "신분증 획득하기"로 넘어갑니다. "아저씨, 아저씨 신분증 내놔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 변명을 하던 개의치 마십시요.

3단계 - 연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끔 경찰같은 짓도 서슴없이 해야하는 슬픈 현실을 경험해야 하는 때지요. 사실 혼자 있을 때 이런 단계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에 전화를 하여 지금 어디 역인데, 갈아타지 않고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오라고 요구하십시요. 안 온다고 하면 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 탄 사람들은 이런 경우 대부분 공동의 감시자가 되어 가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쫴려봐 줍니다.

4단계- 파출소를 경유하여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 피해사실들을 모조리 다 이야기합니다. 간혹 경찰들이 성폭력 사건을 화해무드로 전환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엉뚱한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 조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비법 전수가 있겠습니다.

3. 법 안에서-생존자권리, 어떻게 찾아먹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사단을 내기 위해 경찰서 행을 결정한 용감한 당신. 그러나 경찰서 사전단계인 파출소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파출소 - 경찰서를 가기 전에 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서를 받습니다. 이 때에 무식한 경찰의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옆에 앉히기도 하고, 가해자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읊어 대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 옆에 앉히면 어떻게 하냐, 불쾌하고 불안하다, 당장 치워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읊어 대는 경찰들의 경우는 말로 해서는 안될 때에, 그 경찰직원의 이름을 물어보고 적는 척을 하면 백이면 백 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경찰서 - 경찰서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조서를 쓰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찰서의 관행 때문에, 장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사건 담당 형사의 배정을 요구하십시오. 이 때 특효약은 여성단체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 생존자의 경우 여성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친구를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타 다른 권리들-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illegible] 등에서 동석할 권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존자 권리가 있습니다만, 혼자서 요구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나 1366을 통해 성폭력 상담을 하는 여성단체에 전화를 걸어, 성폭력 사건과 피해상황, 현재 조사 받고 있는 경찰서와 담당형사 이름 등을 이야기하고 생존자로써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114에 전화해도 좋고 1366에 전화해서 연계해 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쓴 조서는 진술한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고 완료할 때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하기 전까지임을 기억하세요) 본 조서 사본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마무리 - 생존자로써의 당신은 지하철 수사대, 파출소, 경찰서에서의 잘못을 바로 잡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해 몰이해한데다가, 생존자에게 무지막지하며,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법 집행(수사) 기관의 시스템이든 어떤 인간이든 문제제기를 하고 싶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민원창구와 민원 담당 부속기관이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찾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했던 1366상담원, 성폭력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넣을 때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등을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일 경우(지하철 등)는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한꺼번에 받아 같이 내면 좋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일시와 장소, 인명, 문제지점과 민원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좋습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은, 그 수위와 양상 등이 너무나 다양하고도 위협적입니다. 이 수많은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곳곳에서 도발하는 성폭력 가해자들와 그 지지집단들이 저지르는 2차, 3차 가해들을 최소화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치유를 쟁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또 다른 생존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런 성폭력이 강요하는 침묵을 깨고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피해를 피해로 인정받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성폭력은 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 안내 책자 <女友토크!>

개요

talk 1. 첫만남에 뛰는 가슴 그런 설레임으로..

■ 반갑습니다! 총여학생회입니다.

총여학생회 정 부 집행부 인사 *

(얼굴사진)

■ 축하합니다.

19대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 *

37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

(총여학생회 선배님) *

사하여성회 회장님 *

(강은교) 교수님 *

(일반학우중 여,남학생 1명씩) * *

talk 2. 처음처럼..그러나 더 멋지게!

■ 이렇게 살아요.

2003년 18대 총여학생회 들여다보기

(행사사진)

총여학생회 1년 계획

(사업계획서 첨부)

talk 3.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 다녀왔습니다.

전여대협 수련회

(감상문) *

행정 오티, 예비대에 나타난 공포여~! *

(오티, 예비대 기행문 감상 형식)

■ 2004년 女友들을 위한 안내

공포!학번을 위한 캠퍼스 시설 안내와

여학생 휴게실 둘러보기 *

(학교 도면, 여휴 사진, 설명)

생리대 자판기 어디 숨었나! *

(생리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talk 4. 빵과 장미

■ 2004년 여성과 문화 읽기

이런 영화 한번 쯤 보고싶다. *

내 삶의 활~력! 책 이야기 *

click하면 멋진 Girl~! *

TV속 작은 세상 *

■ 여성문제vs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여성

부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딱걸렸어!'

(사례를 바탕으로..)

사하 여성회

'가정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여성부

'여기는 한국 여성부 입니다.'

talk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신문 다시보기

(군위안부 문제등, 지나간 기사들 다운해서..)

■ 클로즈업

'청년실업 '이태백'을 분석하다'

(칼럼 형식으로..)

■ 2004명에게 물었습니다.

결혼..그리고 성공

군대...그리고 군사주의

성추행...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하여.

talk 6. 그녀에게..

■ 총여학생회 카페에 놀러오세요.

■ 툭! 터놓고 시작해요.

(건의함에 나온 얘기들.. 답)

■ 여성문제 관련 기관입니다.

(전화번호 안내..)

2차 대경여대협 대표자 회의

1. 단위총화(단위 조·종례/ 학습/ 사업/ 투쟁)

2. 2월 여성정세
<별첨 1>을 보세요~~

3. 대경여대협 총회 흐름과 관련해서..
   ▶ 3월 13일~14일
   ▶ 15기 총노선 수립을 위한 단위별 간담회를 잡읍시다!!

4. 일본군 ' 위안부' 누드 문제
   ▶ 전여대협, 대경여대협 성명서
   ▶ 천여대협 지침
<별첨 2>

5. 여성노동영화제/ 3.8여성대회
<별첨 3>

6. 전여대협 총노선 토론
<별첨 4>

7. 다음회의 날짜 잡읍시다~~

지금 우리의 자세와 관점

선거 50여일 지났다.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된지 50여일이 지나고, 19대 막을 올린지가 오래다.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직정비는 되지 않고, 기본 조종례마저 흔들리고 있다.
투쟁은 어떠한가. 다른 단위보다 나은가? 안심인가! 투쟁에 있어 상대평가는 없다.
투쟁은 집회나가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다. 일상의 모습을 돌아보자,
방중, 특히나 지금 겨울시기의 하루는 학기 몇날몇일에 버금간다해도 모자란다. 1년을 계획하고 실력을 갖추고 핵심일꾼을 단련하여야 할 때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분명 핵심일꾼이다, 우리가 정신차리고 떨쳐나서야 한다.

한시 빨리 조직을 정비하고 움직이자.
그 어떤 투쟁과 사업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2004년 여학생운동은 내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새 학생운동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남이 하는 것 그냥 따라가거나 주어지는 것 냉름 받아먹거나 , 멍하니 시간만 축내는 모습은 아니다.

주체와 조직의 발전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동지애 발현으로 민족영남대 학생운동 만들어나가자.
방중생활과 학생회 사업을 날쌔고 치밀하고 결의높게 준비, 살아가자.
단위운영을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기 투쟁이 대학운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더 멀리 높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핵심 요구 지점

❶일꾼들 생활/문화 혁신

생활력을 높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꾸자.
9시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TV나 비디오를 일상에 끼고 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 .
일꾼들의 생활이 활기차고 운동가다울 때 투쟁력을 높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두고라도 부지런한 일상이 없는, 학우보다 게으른 일꾼은 반성을 하여야한다.
기본을 다지자.
제국주의 문화가 즐비하고, 자본주의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의식적으로 문화를 가꾸고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심있는 당신이라면, 운동하는 당신이라면 우리의 생활/문화부터 바꿔나가자.
제안1. 생활방 규칙을 정한다.

학습으로 정신 가다듬고, 투쟁으로 조직 정비하자!!
2004년 투쟁승리는 학우 대중과 정세의 요구에 우리 일꾼들의 결의결심이 실천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방중은 그 어느때보다 우리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의식을 높여세우고, 대중속에서 실천으로 함께 만들갈 때이다.

❷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
눈만 뜨면 사회의 부조리요, 모순이다.(무엇이 모순이고 부조리인지 알고갑시다. 학습!!)

바로 지금 투쟁으로 깨부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산적해 있다.
"사람이 없어서요,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서요, 총화를 늦게 받아서요. . . "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있지 않은가?
투쟁은 준비되어 있을때 하는 것이 아니다. 학우민중의 요구가 있으면 달려가고, 싸워 가져와야 하는것이다.
투쟁은 일상이다.

❸학습

자기준비에 박차를 가하자.
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한 해 단위 운동이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판가름이 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지금이 어떤때인지, 무엇이 어떠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데 높은사기와 의욕으로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는 자랑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열심히 투쟁으로 살고 있지도 않다. 나의 머리를 채우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정세토론	전체학습	학습토론	여성학학습	전체학습	주총화대회 투쟁교양	

*학습커리 및 계획 추후제출

❹총노선 수립

중심엇이 목표없이 바다를 헤쳐가는 배는 우왕좌왕 헤매게 될 것이다.
같은 자리를 멤돌고,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뒷걸음 치게 되는 수도 있다.
배를 타고 있는 이들은 배를 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일 것이다.

바로 지금 장기적 전망아래 총노선을 수립하자, 방향을 잡아내고 구체적 과제를 알고 1년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 기계적이고 단순 시기상의 요구로만 받아들여 진다면 안하니만 못하다.
힘들게 고민하며 만들고(몇날 몇달), 그 이후 책장속에 박혀 있을 거면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시간낭비, 인력낭비, 종이낭비다.
잘 만들고 잘 살아가자!
총노선은 구체적 방도를 알고 총적 방향을 알고,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난 사업과 운동을 잘 평가하고 혁신지점을 구체적으로 집아내어 앞으로의 여학생운동 전망을 그려내자.
평가 전망 사업을 잘 하자!!

❺체계를 정비하고 대중조직다운 면모를 갖추자!

급변하는 정세는 우리의 준비를 기다려 주지 않고, 학우대중의 요구는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의체계 운영을 잘 하자.
-총여학생회 조직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❻과/단대 여학생회 건설

기층 없는 총여학생회는 있을 수 없다.
학우 곁에서 밀접하게 사업과 투쟁을 벌여내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 과 여학생회(부)/단대 여학생회는 필수요구지점이다.
기간 몇 년동안 기층건설을 위해 달려왔다. 처음으로 돌아가 요구성과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방중기간 다져 놓아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시작인 듯 하지만 그 땐 이미 늦다.
과여학생회의 경우 과집행부가 거의 다 꾸려지고 방중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뒤늦게 세우자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단대 여학생회 역시 지금부터 인물을 찾고 한해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기층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학우들의 요구에 나아갈 수 있게 준비/살아가도록 하자,

❼학우의견 수렴(주고 받기)

매일매일 학우 만나기(만난학우난 1년 책임지기)

- 대표자 1일 2학우/ 간부 1일 1학우
- 각자 메일링 구축(1년간 소식알리기)
- 만난 학우에게 자필 편지 쓰기

. . . . . 내용 : 총여학생회 10대 과제 선정외 고민 더 풍부히

❽핵심 일꾼 단련 사업/ 새내기

❾학내 여성학자사안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❿새 학생운동 구현

새 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워내고 우리의 실천으로 구현한다.
사업과 투쟁속에 나섰던 과제를 학우대중 속에서 우리 일꾼의 모범창출로 과제와 상을 그려내자. 지금 우리의 현황은 어떠한가?
인식이 높지 않다 그러다보니 어떠한 구체적 실천도 있지 않다.
새 학생운동에 대한 많은 토론을 가져가고. 실천적 모범창출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지금의 우리 모습을 알고, 새 학생운동의 요구를 알고 그 안에서 일궈나가자.

당면 사업

새내기 새로배움타
홈페이지 개설

집행계획

선전의식화 . . .가장 기본은 대중의 정서와 정치의식을 명확히 앎에 있다.
-대중을 만나기 위한 우리 준비 : 학습과 정세토론
-일상선전사업 구체적 계획 아래 진행 : 방중 거점 마련 선전 활동 진행/ 선전내용 주기적교체
-인터넷 선전 : Home-p·카페 중심으로 / 메일링 리스트 구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	6	7	8	9	10	11
2003 평가(새•터) 방중 집행계획 논의	새내기사업(주체) 2004 새•터 논의 . . .집행계획	여학생회란? 요구지점은?	과여학생회(부) 기간 평가 요구지점은?	*대경여대협 공고 과여학생회(부) 방향 및 구체계획 . . .간담회 등등	•대경여대협 건설 관련 논의 계획 및 흐름 •총여학생회 체계 구상 •2004년 민족영남대 총여학생회 총적방향	
12	13	14	15	16	17	18
여성학자사안 연계획(복지· 성폭력관련 포함) 방중기간 구체적 흐름 네이음		*대경여대협 등록 <---------의장후보 활동----------		<--------빔청학련 일꾼대회--------> <----------대표자수련회---------->		
19	20	21	22	23	24	25
<---------대경여대협 총회--------->		설			총노선 확정 영역별 과제, 시기별 사업 토론 및 논의	
26	27	28	29	30	31	1
					<-------한총련 대의원대회-------->	
2	3	4	5	6	7	8

1. 18대 총여학생회 건설 과정과 준비정도

- 조직/체계 정비, 간부인선 -

.여학일꾼이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간부인선은 처음부터 다소의 한계가 있었다.
.체계정비나 간부인선에 관한 요구성에 대한 의지가 총여건설 얼마동안은 적었다-잘모름
.총여학생회 : 3월 넘어가며 점차 안정화됨
단대 여학생회 : 차이가 있으나 2명이상 간부있는 단위가 없어(문여제외) 어려움 있음
.중앙운위 : 총여 건설이후 운위를 정기적으로 가져감. 내용적으로 무족성이 있음

2. 총노선

.총노선 수립이 늦어짐(3월 - 개강이후) <----- 주체가 없고, 전여대협/새터 등등 눈앞의 사업에 매몰됨. 총노선에 대한 고민이 잘 되어지지 않음
.기층과 함께 만들어 가지 못하고, 학우들의 요구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직접 만나는 등의 노력없이 앉아서 머리로 짐작하였다.
.총여학생회를 위주로 한 핵심일꾼이 총적방향과 깊은 논의를 가져감 But(시간에 쫓기고 사업적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음)
.1년간 총노선을 의식적으로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으나, 매사업과 투쟁과정은 총노선의 핵심방향과 같았다.

3. 조직사상

- 과여학생회/ 대의체계 -

.중앙위 : 상반기 -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위원들의 의지가 있었음.
하반기 - 잘 성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총여학생회의 일상적 지도사업이 부족하였음.
. 과 - 단대 - 총여 로의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
.과여학생회의 고민과 사업을 잘 담보해 내지 못하였다.

- 핵심일꾼 발굴사업 -

.1년간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만나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간부 각자의 고민이 서로 잘 총화되지 않아 상황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새내기사업 주체의 부족이 있었다.
.人을 만나는데 있어 성급함이 있었고, (내용적)일꾼들의 준비정도도 낮았다.
.핵심일꾼들의 학습과 교양이 잘 되지 않음 <----- 실천적 문제 + 요구성 낮음
.구체적 계획이 있지 않음

- 일꾼들의 자기 역할 -

.총여학생회 간부 : 실무적/ 사업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였음
상층 간부로서의 지도사업과 책임에 있어 부족 <----- 자각 x, 실력부족, 없는 간부속에 실무와 여러일정에 허덕이기도 함
.단대여학생회 : 주체적 고민이 낮고, 단대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느낌. 준비정도 낮음

- 조직 생활 -

.총여학생회 : 회의의 안착화에 있어 성과가 있음. 요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회의를 가져가지 못할때에 간부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함. 의식적으로 고민
But 자신스스로에 대한 꼼꼼한 총화와(일상적+사업적) 깊이있는 모습은 부족하였음.
사업적 성격이 베어남.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
.여성운동과 자민통운동의 관계(혹은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 <------ 실제 맞닥뜨리는 부분의 고민도 있었음
.논의를 잘 가져가지 못하였고, 풀어내는 과정이 부족점이 있음

4. 대중투쟁

- 6.15 공동선언 이행, 반미반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투쟁(집회...)에 함께하고, 해야한다는 고민과 의지도 있고, 매사업의 중심고리로 가져나감
.But 실제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알려내는데에 적극적이지 못함, 이끌어내고 주체로 세워내는에 부족함.
.여학단위에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지 않았다. 주어지는 데에 함께 하는 경향이 있어다.

- 반가부장제 -

.1년간 지속적으로 알려냄.
.깊이있게 사고하고, 전문적으로 풀어내는데에 부족성이 있었음.
.반성폭력의 경우 주체 1인 외에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을 만큼 함께 고민하지 못함, 주체의 고민을 심어주고 계기가 되는 과정은 있었음.

- 여성민중생존권 -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려 함. 학우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학내 비정규직, 농활) But 연대관계(성과는 있음) 이상의 고민이 되지 않은 한계는 있음.(나의 일이다. . .)

- 학원자주화 투쟁 -

.여성학자사안에 있어 주체적 고민이 있음(복지, 교양과목, 성폭력 상담실. .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부족성이 있음.
.결과적 성과의 부족

* 대중의식화

.대부분 일상사업과 대중사업때 풀어냄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과정이 됨.
.알려내기 위주

5. 전여대협 의장단위로서의 평가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부회장의 역할규정이 잘 정리 되지 않아, 서로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회장의 부재시 사업이나 총화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전여대협에서의 지도사업에 부족성이 있었음.
.의장의 역할을 잘 가져가지 못하였음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이해하고, 조직화 등등에 있어 잘 가져가려고 노력하였음. But 의장단위로서의 의식적 모범창출의 부족점이 있음. 실제 내용과 투쟁에 있어 잘 발아안아야겠다는 의식성은 부족하였음.
.영남대 여학일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짐.